

## 깊이 보기

: 인류 역사의 한 줄기를 함께한 감염병

# 『페스트』<sup>1)</sup>



알베르 카뮈 지음 유호식 옮김  
문학동네(2021) 출판



### 박형철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보건관리팀 원장 /  
예방의학전문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40여 년 전 대학 시절이었다. 무심히 읽었고 등장인물들의 열심에 대해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지금 이 책을 다시 소환한 이유는 SARS, 신종인플루엔자, MERS에 이어 3년째 끝날 줄 모르는 COVID-19 팬데믹 상황과 닮았고 절차, 의식, 감정 등 불편한 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4x년 알제리 오랑에서 발생한 흑사병에 대응하는 ‘보통 사람 연대(連帶)의 연대기(年代記)’이다. 직업 관계상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의사 르외의 기록이면서, 타루 수첩에 등장한 인물들의 선한 헌신과 군상(群像)의 행태를 서술한다. 책은 유행 정도에 따라 5부로 이루어지는데, 인상적인 장면 세 곳을 꼽을 수 있다.

먼저 페스트로 인한 도시 폐쇄 전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책은 특별할 게 없는 소도시 오랑의 소개에 이어 죽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르외의 병원 수위가 원인 불명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유사 환자가 늘고 그는 주변 의사들과 사례를 공유한다. 그리고 페스트임을 직감한다. 도청 보건위원회를 소집하여 방역 사항을 전달한다. “…… 선언하고 도시를 폐쇄하라.” 시민들은 관문 폐쇄 등의 난관에 봉착하고 생이별과 유배 등 큰 혼란이 초래된다. 친구가 죽고 무역이 쇠퇴하고 영화관, 카페 등 일상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페스트 덕에 성장하거나 겪게 되는 비참함과 고통, 전능한 신의 존재와 창조된 세계를 거부하기도 한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나라 ‘ㄷ’광역시 등 일부 지역도 폐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그러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나라는 도시 폐쇄라는 극단 조치를 취했고, 그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을 언론을 통해 엿듣기도 한다. 그러면서 도시 폐쇄까지 이르지 않은 우리의 결정에 대해 현명함과 위안을 얻는다. 원칙주의자인 르외는 진찰을 하고 백신주사를 놓으며 림프샘 명을 짜고 왕진을 다닌다. 진단되면 격리를 해야 하는데, 완치 또는 죽어야 만나는 가족들과의 분쟁으로 경찰이나 무장군인의 개입으로 이어진다. 멈추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기에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두 번째 장면은 3, 4부에 적고 있다. 페스트 유행이 정점에 오른 오랑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페스트가 사회 모두를 덮어 버렸고 최선을 다해 투쟁했으나 페스트 집단 사건과 공유하는 감정만 존재한다. 이별과 귀양의 감정, 두려움과 반항심, 시민들의 폭력성, 사망자의 매장방식, 헤어진 연인들의 고통 등을 경험한다. 지역통제에 불만을 품지만 ‘나보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간다. 전염병이 바람 따라 전파된다고 믿기에 바람을 두려워한다.

2부에서 ‘편지를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서신교환 전면 금지 포고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감염병 유행 때 등장했던 어두운 과거 모습이다. 국내외 한센병 격리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한센병에 대한 혐오나 편견, 차별로 이어졌으며 ‘지폐 유통’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소독에 대한 불신으로 방화가 이어진다. 감염은 군인, 수도승, 죄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급 감염병으로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한다. 원인균은 페스트균(*Yersinia pestis*)이고 감염된 쥐벼룩에 물리면 감염된다. 림프절·폐·패혈증 페스트로 나뉘며, 증상은 림프절 종창, 발열, 오한, 폐렴, 구토, 설사 등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지에서 매년 2,000명 이상 발생하며 국내감염보고는 아직 없다. 항생제로 치료하며 가용 가능한 백신은 없다. (자료: 질병관리청)

## 깊이 보기

: 인류 역사의 한 줄기를 함께한 감염병



등 단체생활자들을 주로 공격한다. 코로나 유행에서 3밀 즉 밀폐, 밀접, 밀집 환경과 관련된 걸로 보인다. 경제활동은 중단되고 실업자는 증가한다. 사망 증가에 따라 임시적이고 기묘한 장례 절차를 만든다. 장례식은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간소화, 신속성에 중점을 둔다. 품위 있는 장례를 원했지만 식량보급이 어려워지자 시민들의 관심도 변한다. 묘지 수용 능력이 초과했고 이런 일에 관여하는 간호사, 인부들은 감염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총소리, 화재와 기록카드, 화장터 연기, 구급차와 치욕적인 죽음, 재회와 평화의 시간에 똑같은 유배의 빵으로 식사하고, 사랑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 우정이나 미래가 없고 순간만 있다. 대부분의 이들이 유배되었으나 취재 여행차 오랑에 왔다가 갇힌 랑베르는 가장 심하게 유배된 사람이다. 한 아이가 페스트 광풍에 겪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여러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한다. 지켜보는 사람들 특히 파늘루 신부의 종교적, 내적 갈등, 자신의 병고에도 '사제가 진찰을 받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주변인들의 우려와 경의를 동시에 받는다. 빈부 격차가 커진다. 평화를 갈구하고 패배자들에게 더 연대하고 인간들에 관심을 나타내는 타루의 지난 온 생애가 르외와의 대화에서 밝혀진다. 다행인 것은 페스트 환자 중 몇몇이 회복하고 사망률이 감소한다. 죽은 쥐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쇠퇴기다. 병의 기세가 꺾였으나 시민들은 크게 기뻐하지 못한다. 보건대 사람들이 피로에 지쳤다. 페스트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 감금과 유

배를 겪으면서 자기 통제력을 잃은 사람도 있다. 공동체 생활도 다시 시작한다. 확실한 것은 통계수치가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도청은 의사협회 자문을 거쳐 질병 근절 발표 앞두고 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 친지들에게 페스트는 계속되고 있다. 신중의 의미로 출입문 폐쇄를 얼마간 더 할 예정이다. 이때 르외는 함께 보건대를 조직, 운영하며 페스트 투쟁 속에서 우정을 나누던 타루의 죽음을 목도하고, 치료차 요양소로 떠났던 부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 출입문 개방으로 이별과 유배의 생활이 재회의 날로 변한다. 직전의 야만성, 광란, 유페, 죽음을 부정하고 있다. 고통의 종말을 축하하지만 망각의 시간은 시작이다.

“연대기는 승리의 기록이 아니다. 페스트균은 죽지 않고 일상에 잠복할 것이다.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쥐들을 다시 깨우고, 어느 행복한 도시로 보내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로 소설은 끝맺는다. 페스트의 재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는 코로나 등 최근의 방역 상황과 흡사하다. 대유행을 반복하다 보니 반년 전 발생이 저점에 이르러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해도 시민들의 두려움은 여전하다.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마스크 착용을 꺼리지 않는 장면이나 물리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지난 2년 반의 지독한 대유행의 트라우마와 교훈 때문일 것이다.

의사의 사명감이 페스트 유행 현실에서 굴절되기도 하나, 르외가 감염병을 대하는 자세—사려 깊고 진지하며, 유사사례나 상황 등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성, 인정 넘치지만 격리 판단을 위한 환자 진단에서 보이는 냉철함 그리고 병든 부인이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감정 등이 눈길을 끈다. 의료인이기에 글이 ‘전염병 유행 그 자체’로 읽힐 뿐, 카뮈와 그의 작품 해설에서 언급되는 ‘전쟁의 기억’이나 ‘부조리’, ‘반항’, ‘실존주의’ 등은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강제격리, 혈청치료, 도시봉쇄 등 80여 년 전에 나온 소설 속 방역 수칙이 2022년 코로나 방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기시감을 느낀다. 우리는 언제나 의사 르외가 되고 타루나 랑베르, 그랑, 파늘루가 될 수 있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팬데믹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출간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인기를 끄는 것을 ‘역주행’이라 한다면 팬데믹 시대를 맞아 이 책이 재평가되길 바란다. ‘시대를 넘어 변함없이 읽힐만한 가치를 지니는’ 즉, 대유행의 시대에 『페스트』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전임이 분명하다. 일독을 권한다. 🍷

강제격리, 혈청치료, 도시봉쇄 등 80여 년 전에 나온 소설 속 방역 수칙이 2022년 코로나 방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기시감을 느낀다. 우리는 언제나 의사 르외가 되고 타루나 랑베르, 그랑, 파늘루가 될 수 있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팬데믹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